

이웃을 - 피로에도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하고 따라서 양이 부담이 되는 일들이 존재하는데, 간혹 사정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해줄 만하다.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배려하며 책임감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.

정예진 - 자음 하는 공부는 한때까지 가진 병원에 입시해서 하는 공부에 비해 쉬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. 병원에 입사하여 하는 공부는 암암암과 부담감이 크다고 했는데 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한편이면 한자를 위해 나쁜 기억이라는 하위로 자음부터 병사 정신을 가지고 병은 자는 피로하는 공부를 권해야겠다.

이승희 - 간호사는 환자를 위해 힘써야 하고 책임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야 한다. 나는 평소에도 책임감이 부족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책임감도 가지고 더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.

윤예지 - 내 꿈은 비록 간호사가 아니지만 이 책을 읽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책임감도 무거운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. 그래서 앞으로는 비록 내 꿈이 간호사는 아니지만,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. 다른 사람을 위해 화병하며, 생활함을 길러야겠다.

윤송희 - 고등학교생 때 간호대학을 가기로 한 임정은 노력을 하고 간호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때 만큼 또 공부를 하고 다른 학교에 비해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학병원에서 들어가더라도 고등학교 / 대학교 때 배웠던 α 그 병원 구조, 병원에 대해 등등 α 그 편해야 할지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었다.

간혹 나는 국가보안 관련자를 만났는지?

여러분과 비교 해서

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?

어떤 일을 겪었는지?

많은 일을 겪었는지? 내가 아는 것 못했던 것, 알더라도
생각

